

‘우먼파워’ 梨大출신 약진

정치권과 관계에 ‘이화여대 파워’가 막강하다. 장상(張裳) 이대총장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‘일인지하(一人之下) 만인지상(萬人之上)’의 총리직에 오르자, “현 정부 들어 두드러졌던 이대 약진의 결정판이다”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.

현 정부 들어 이대출신 인사들의 정·관계 진출은 98년 조각 때 신낙균(申樂均) 문화관광부장관과 윤후정(尹厚淨)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각으로 막이 올랐다. 그 이후 이대 동문



동아일보 자료사진

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을 방문했던 장상 국무총리서리(오른쪽)가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북한 여성들의 작업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.

신낙균-한명숙장관 이어 최초 여성총리까지 배출 일부선 “李여사 입김작용”

인 한명숙(韓明淑) 여성부장관, 이승희(李承姬)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뒤를 이었다.

개각 때마다 하마평이 오르내린 박영숙(朴英淑) 한국여성기금 이사장도 이대 출신. 특히 여성부는 이대 출신들의 ‘독무대’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관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대 출신들이 즐비하다.

이처럼 현 정권 들어 이대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진데는 이희호(李姬鎬) 여사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. 이 여사는 이화여전을 다니다 광복후 학교가 잠시 폐교되는 바람에 서

울사대로 옮겼다.

98년 4월 정부 출범 직후 이대 출신 각료를 위해 이대 총동창회가 주최한 축하연에 초청받았던 이 여사는 “사실 나도 이화학교를 나왔다”고 고백, 서울사대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동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, 정식으로 이대 동문으로 등록됐다고 한다. 이 여사는 또 50년대 이대에서 사회사업과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다.

민주당에도 이대 출신이 많은데 이미경(李美卿) 최영희(崔榮熙)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.

이화여대의 한 관계자는 “110년 이 넘는 이대의 응축된 힘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”고 말했다.

윤영찬기자 yyc11@donga.com

부형권기자 bookum90@donga.com